

연중 제18주일

제 1독서 : 출애 16,2-4,12-15

제 2독서 : 에페 4,17. 20-24

복 음 : 요한 6, 24-35

순정이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 35)

강론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박병준 신부 / 부안 천주교회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 6, 28) 계속된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
엇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원들이 명동 성당 마당에서 농성을 하는데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던 꽤나 열심히 보이던 여 신자가
노조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욕설을 퍼붓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함축적으로 표
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
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묵인 사
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가 4, 18-19)

나자렛 회당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
하게 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맨 먼저 찾아 나선 사람들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서럽고 한뭇한 밀바다 인생들,
즉 어부들, 천대받는 거지, 병신, 문둥이, 고아, 과부,
창녀,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면서
이러한 불행의 원인인 세상의 악과 싸우시며 해방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소유하고
더 소비하고 더 누리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남
위에 올라서고 남을 부리고 지배하고픈 욕심’에서 벗어나
가진 바를 나누라고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님은 민족과 신분과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파벌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 한형제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 자본주
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파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
많은 대학생들, 북한 동포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 내 가
슴으로 껴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 세우는 악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
습니까?

소리

거두절미와 진실

언론노조가 기자 1백47명 프로듀서 1백14명 업무직 2백
19명 등 7백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노보(7월23일자)에 발표됐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됐던 조의표명에 대해서는 절반 이
상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김정일 당비서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회담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56.9%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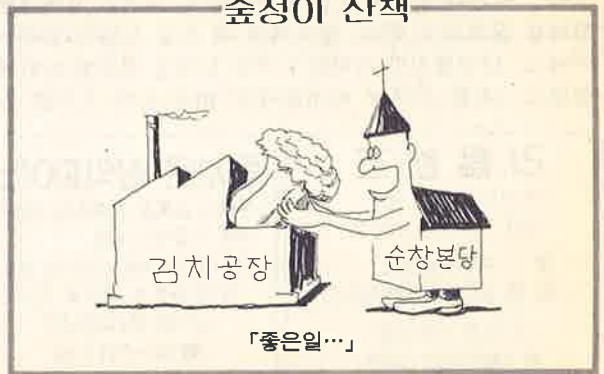
이밖에 김정일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전체 응답
자의 60.6%가 소문 추측 편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국회통일위에서 이부영 의원은 정부 차원의
조문사절 파견 용의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말하였고 “어디까
지나 국민들이 양해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며 오직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화해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까지
도 덧붙였는데 발언의 내용이 거두절미된 채 보도되는
바람에 김일성에 대한 애도만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5일 전남대 분향소 설치문제를 대서특필한
중앙언론사의 기자들은 단 한 사람도 현장 목격자가 없고
합수부과 동행취제한 광주일보 기자도 분향소는 없었다
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도 가리지 않은 채
기정사실로 보도됐다.

여론이 특정계층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발언내용이 거
두절미되어 진의가 왜곡되고 신중하지 못한 요즘의 보
도는 통제시대로의 회귀인가 걱정스럽다. **문**

순정이 산책



가정의 해 - 모범가정을 찾아서 ③

조건규(토마스 아퀴나스) · 강귀자(가타리나)의 가정

부안 천주교회

지난 5월 부모를 살해한 한 유학생 패륜아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실로 엄청났다. 그때 어느 교육 전문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은 “성실한 바보들”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우리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세계 제일이지만, 참다운 인간교육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그렇다. 오늘 날 많은 부모들은 학교 교육에만 열을 올릴 뿐 그 외의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러한 시세의 흐름을 거슬러 참다운 인간교육을 시키며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안 읍내에 살고 있는 조건규(50세, 부안국민학교 교감) · 강귀자(44세, 줄포국교 교사) 교사부부의 가정을 소개한다.

이들이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85년 8월 동료 선생님께서 M.E를 소개받아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지도 신부님과의 격의없는 대화, 피교육자들의 헌신적이고 형제적인 사랑, 서로를 아끼는 진지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이때부터 교리를 열심히 배워 이듬해인 '86년 4월 부활절에는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을 바꿔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행복하십니까?”하고 여쭙었더니 어른답지 않게 부끄러워하면서도 확신에 찬 대답을 주셨다. “슬하에 1남1녀가 있는데, 큰애는 조가비(미카엘라, 전여교 3)이고, 작은애는 조호진(알베르토, 완산고 2)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때이지만 절대로 공부 때문에 아이들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걸 아이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께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아이들 전주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없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때는 아침 저녁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훈계할 일이 있으면 기도시간에 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면 꼭 함께 기도하죠.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순절에 서로 보속을 주는데 이놈들이 글썄 담배를 잘 피우는 아빠에겐 담배를 끊으라고 하고, 엄마에겐 새 옷을 사입지 말라는 거예요. 난감했지만 아이들이 주는 보속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40일 동안 T.V를 보



지 말라는 보속을 주었죠. 그랬더니 T.V화면에 ‘T.V 안 보기’라는 글씨를 써 붙이고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더라구요. 그래 그 달에 딸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했더라구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신부님,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아이들이 비뚤어 질 수 없어요.”

자녀들과 격의없는 대화, 지금도 어쩌다 집에 오면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이부자리 퍼놓고 씨름을 하는데 이놈이 커서 힘이 부친다는 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옛날 살을 맞대며 함께 자고, 알밤 맞으며 억지로 기도하던 어린시절이 생각났다. 맹모 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고 했던가. 행복한 가정, 참다운 인간교육은 우선 부모님들이 보여 주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일 게다.

“이분들은 언제 만나도 항상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인다.”는 본당 신부님의 말씀을 끝으로 아무쪼록 조 선생님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부는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책임의 은혜를 받는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이는 징표가 되어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 14항)

리틀핸즈

- 원목가구 주문 제작
- DIY 나무모아 전문점

류 수(에밀리오)
김 경 숙(아기 막달레나)

효자1동 파출소앞

☎ (0652)223-6422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고 입구
김 태 우(알폰소)

☎ 88-7717~8

장애인과 함께 삶의 기쁨을

마 일 생 수

최신시설로 지하 157m에서 채취하고 있는 천연 알카리수 ※생수로 인한 이익금은 장애인 복지 및 성전건립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작은 예수회

☎ (0652)225-4678

호출기 015-682-4678

관원모집 수시접수 태권도 효문체육관

차량운행

김 현 덕(다미아노)
손 화 수(마리아)

효문국교, 풍남중학교 정문 앞

☎ (0652)225-2234~5

교리상식 ⑥

요한비안네 사제기념(8월 4일)

사제들의 주보인 비안네성인(1789~1859)은 프랑스 명리용 근처 다르디이에서 출생하였다. 당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비안네성인은 라 루브르에 있는 르지의 묘소 참배와 견진성사를 통해 성소를 걸심했다.

1811년 비안네성인은 바리에르의 소신학교에서 철학과 1813년 리옹대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라틴어 때문에 퇴학당했다. 그러나 18세 때부터 비안네성인은 에킬리의 아베 발레 신부의 지속적인 개인교수와 특별시험 주선으로 1815년 그레노블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비안네성인은 1818년 아르상 동브에서 사목생활을 했는데 종교심이 부족한 그 마을을 성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엇보다도 비안네성인의 명성은 고해성사에 있었는데 프랑스 전역과 외국으로부터 각계각층에서 고해성사를 위해 그를 방문하여 1855년까지 그의 고해자들은 연 2만명에 이르렀으며, 만년에는 하루에 16~18시간을 고해소에서 보냈다.

주의 거룩한 변모축일(8월 6일)

공생활이 끝날무렵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타볼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는 하느님으로부터 영예와 영광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과 주님의 권능과 제림을 드러낸 '타볼산의 거룩한 변모'를 기념하는 축일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복음에 대하여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날을 큰 축일로 정해 지내 왔다.

우리는 사도들이 주의 거룩한 변모를 보고 항상 그 곳을 떠나지 않고 그 영광을 보고자 했던 태도를 상기해야겠다.

교구 소식

1. 교구청 직원 휴가: 8월1일~6일 각 본당에서는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여성 제46차 푸르실료: 8월4일~7일 천호 피정의 집
3. M.B.W 새 본당상 수련회: 8월19일~21일, 대상-본당 신부, 수녀, 사목위원
연락처-금마 성당☎(0653) 53-7187
4. 로사리오회 성서세미나: 8월6일~7일 동막 공소
5. 성모 기사회: 8월6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6. 푸른군대 피정: 8월4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7. 하계 중·고등학생 영성학교: 8월6일~7일 오후2시 수류 천주교회 교육관
선착순-160명 문의-전주교구 성령봉사회☎87-2722
8. 운전기사사도회 월레미사 및 회의: 8월4일(목) 오전11시 치명자산 성당
9. 사람의 다리 월레미사: 8월8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휴무관계로 옮겨짐)
10. 주목성 신부 전화번호 변경안내: (0364) 482-0654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환경보호(4)

편리함을 앞세워 우리 일상생활을 장악하고 있는 일회용품들을 사용하지 맙시다.

방학특강
조찬화 미술학원
유치부·국교부·중교부
조 찬 화(글라라)
삼천동 삼익APT 앞
☎(0652)221-0870

서울방사선과 의원
(종합건강진단센터)
종합검진, 유방촬영
특수촬영, 병리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3

오순절 평화의 수도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이
상의 미혼여성
· 일시: 7월31일 오후 2시~5시
· 장소: 삼랑진 본원 (0527)52-4241
· 준비물: 성서

요심이 (1092) 김병오



신규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부문: 남작 일반사부직 〇명 2.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27세미만 고졸이상 병역필및 별제자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고등학교 및 최중학교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소지자 한함) 주민등록등본및 초본 4. 제출기간: 8월1일~6일, 문의 88-0194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미리내 천주성삼수도회
여름성소자 피정
· 일시: 8월8일~9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미리내 천주성삼수도회 본원
· 대상: 중·고 및 대학생, 일반(수사, 수사신부 지망)
· 참가비: 10,000원
· 문의: (0334) 74-1251~2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자매회
성소자 하계 수련대회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 일시: 8월6일~8일 오후 1시
· 장소: 가평 꽃동네
· 참가비: 10,000원
<국민학생, 중학생>
· 일시: 8월14일~15일 오후 1시
· 장소: 음성 꽃동네 본원
· 참가비: 5,000원
· 문의: (0446)78-9810~12 (0356)85-3011, (02)272-010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연중 제 18주일

◎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행사에 협조해 주신 자모회 및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축! 세례명 축일: 본당 신부님(8월10일)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축하식-다음주 장엄미사 후
* 8월10일까지 미사 전에 사제를 위한 기도
 2. 사목회 및 제단체장 단합대회: 오늘 장엄미사 후
사목회 임원, 각 분과 부장, 차장, 제단체장들께서는 참석바람.
 3. 특별기도 및 성체 강복: 4일 저녁미사 후
 4. 병자 봉성체: 5일 오전중, 사무실에 신청
 5. 복사단 소풍: 3일 전 8시30분, 상록해수욕장
* 저녁미사는 없고 새벽미사 있음.
 6.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2일 어머니미사 후)
②반회장 모임(4일 전 10시30분)
③울뜨레아(7일 장엄미사 후)
 7.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8. 금주 청소: 중노1, 2반
차주 청소: 중노3, 4반
- 지난주 봉헌금: 919,360원 □ 2차헌금: 421,060원

* 서화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 연중 제 18주일!

1. 반창회: 7월31일(오늘) 공식미사 후
 2. 본당 M.E가족 소개 모임: 7월31일(오늘) 공식미사 후(사무실)
 3. 자모회: 8월3일(수) 오전 10시30분
 4. 사목회: 8월9일(화) 오후 9시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에 협조해 주신 분들: 신부님, 사목회장님, 남부의원, 유대회, 성심약국, 유철감, 총대영, 남태관, 강석주, 최혜인, 김진례, 고정숙, 성심회, 유용산, 박정숙, 이주철, 박원경, 영세실리아, 남정숙, 교대수퍼, 김인수,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도 감사드립니다)
 5. 성전 보수헌금 신임하신 분(지난주): 익명 50만원, 정만성(루가) 5만원, 7월24일 현재 3백6세대 신임
 6. 사무장 하계 휴가: 8월2일(화)~8월6일(토)(기간은 사무 보지 않음)
* 성전 보수헌금을 서둘러 납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896,000원 □ 교무금: 1,777,000원

* 복지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상호
사목회장 황길영

1. 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캠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 8월중 반모임 쉽니다.
 3. 울뜨레아: 8월2일(화) 저녁미사 후
 4. 자모회: 8월4일(목) 오전 10시
 5. 성체 강복: 8월4일(목) 저녁미사 후
 6. 대견회: 8월7일 공식미사 후
 7. 사목회: 8월7일 저녁미사 후
 8. 여성 46차 푸르실료: 8월4일~7일(천호).
 9. 성당 청소: 8월6일(토) 구세주의 모친, 일치의 모후
 10.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유복규 부부
봉헌-유덕열 가족
 11.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지혜룡
- 지난주 봉헌금: 492,370원 □ 교무금: 779,700원
□ 감사헌금: 120,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철

◎ 연중 제 18주일

1. 금주: 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2. 성가정회: 8월1일(월) 오전 11시
 3. 초·중·고 교리교사 단합대회: 1일~3일 장수 명천
 4. 빼에따회: 3일(수) 오전 11시
 5. 성체강복 및 조배: 4일(목) 오전 10시
 6. 성모성심회: 4일 오후 3시
 7. 병자 봉성체: 5일 오후 2시
 8. 차주: ①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주일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계축골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9. 감사합니다.
①여성 제단체에서 초·중·고 여름 행사 간식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②성당 앰브렐론-100만원(익명) 100만원(익명) 100만원(익명) 50만원(법회갑 요한)
③감사헌금-10만원(고삼순 마리아)
 10. 카로리아 청년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연습-화요일 오후 8시, 일요일 오후 6시, 신앙심 깊은 전동 청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77,03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1. 오늘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 헌금일
 2.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6일(토) 저녁
③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3.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 회비 납부의 날
 4. 자모회 소풍도 방문: 3일(수) 오전 9시
 5. 성시간 및 성체 강복: 4일(목) 저녁미사 후
 6. 병자 봉성체: 5일(금) 오전 9시
 7. 여름 신앙학교를 위해 도움 주신 분: 양주태, 김종석, 자모회-각 10만, 강덕용, 성모회, 어두리 기도회-각 5만, 안나희, 이옥동, 이석남, 황대호, 오철태, 박종권-각 3만, 김봉길, 이병수, 양대환, 성가대, 한동욱-각 2만. 2차헌금-136,700원. 누계-1,563,700원. 도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8. 영성성체 교리: 13일까지 오전 10시
 9. 여성 46차 푸르실료: 4일(목)~7일(일) 천호 피정의 집
윤 마리 도미니카 수녀님, 이춘봉(리디아) 많은 기도바랍니다.
 10. 성가 연습: 4일(목) 저녁부터
 11. 금주 청소: 구세주의 모친Pr
 12. 차스 청소: 신비로운 장미Pr
 13.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양주태 ②주영례
봉헌-유춘근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김봉길 ②인행남
봉헌-한동욱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84,630원 □ 교무금: 110,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1. 성시간 성체 강복: 4일 저녁 7시30분
 2. 구역 반회장 연수회: 2일 전 10시30분
 3. 푸르실료 여성 46차 강습회: 8월4일~7일 김종자(마리아) 유순자(루시아) 신정순(발바라)
 4. 초·중·고 교리교사 신앙학교 수련회 평가회: 2일
저녁 8시, 자모회원 및 담당임원 참석
 5. 유아 세례: 6일 후 2시30분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6. 본당 자체 감사 준비: 8월11일 10시, 사목회 각 분과 및 제단체장은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오늘은 의무금(교무금) 납부주일: 월별로 책임 완수
 8. 회의: •부녀회-3일 어머니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후 2시30분 •한빛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9. 미사(주일) 안내 담당자: 오늘-강상근(미카엘) 최현근(요한) 최세희(다우) 이경남(가타리나) 전숙자(엘리사벳) 다음주-함문권(아오스딩) 김원철(그레고리오) 이규현(루카) 윤명숙(엘리사벳) 채금자(미카엘라)
 10. 7월 전일자 환영합니다: 정병순(사라) 84-2088 공식미사 후 환영인사. 11. 꼬고 잠고고 달고가기: 전기, 선풍기, 수도, 문 확인하여 절약하는 정신을 가집니다.
 12. 축! 회갑: 안인희(마리아) 장부-최춘, 오늘 12시 회갑미사, 장소-호성동 기린원
- 지난주 봉헌금: 1,074,200원 □ 교무금: 1,626,000원